

지난해 12월 19일 선거 결과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 노무현 정부는 진보를 표방하는 정권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 일을 살펴보면, 자신이 내건 이념과 사뭇 어긋난 일이 적지 않았다.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한 것도 그렇고, 농민들의 성난 반대를 무릅쓰고 예프티에(FTA)를 강행하는 것을 봐도 그렇다. 물론 국익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일이나 보수적인 정권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집권기간 동안 집값은 더 뛰었으며, 비정규직의 문제가 사회전체의 이슈가 되었다. 청년실업이 백만을 넘어섰고, 빈부격차는 더 커졌다. 지난 10년간 진보적인 이념을 내세운 정권이 도리어 신자유주의를 충실히 따랐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는 서울시장으로 임할 때, 청계천을 복원했으며, 버스광역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 청계천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서민들이 큰 돈 들이지 않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되었고, 광역버스제는 서민들의 교통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주었다. 이명박씨를 옹호하려는 것은 이 글의 뜻이 아니다. 이번 선거결과를 보면서 이념과 실제 결과가 서로 다른 그 동안의 모습을 국민이 심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이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결과가 달리 나타난다면, 자신을 겸허하게 반성하는



불자 세상보기

김 광 하
작은손길 대표

새해엔 ‘마른 지혜’ 벗어나자

일이 앞서야 할 것이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크릭(Willow Creek) 교회는 2006년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50개 교회 중 1위를 차지한 교회이다. 교회성장을 꿈꾸는 전 세계 개신교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방문하고 있다. 최근 이 교회는 지난 32년 동안 자신들이 행한 목회활동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그 동안의 사목활동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이다. 수많은 영성프로그램을 도입하

고 교회의 환경을 개선하여 신도들의 수가 획기적으로 늘었지만, 정작 교회 신도들의 의식을 조사해본 결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밖에서는 최고의 교회라고 세상이 평가해주었지만, 참다운 신앙과 거리가 먼 신도들의 실상을 발견한 것이다. 나는 이념과 현실의 괴리를 발견하고 그 모순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이 교회의 지성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우리 불자들도 이런 현실을 탄산지식으로 삼

아야 할 것이다. 젊이 크고 신도가 많다고 해서 포교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사실 지와 행이 일치하는 삶은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이 예로부터 한 걸 같이 강조해 온 가르침이다. 특히 행이 없는 삶을 따른 지혜라고 경계했다. 법을 전할 때도 바른 안목과 행실을 으뜸으로 여겼다. 사후생명의 첫 번째는 중생을 고통에서 제도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자신의 욕망과 집착 끊기를 다짐하는 서원이다. 이런 훌륭한 가르침 속에 살면서도 나 자신의 삶을 돌아켜 보면 불자로서 부끄러운 점이 많다. 수행이나 봉사하기만족에 그치는 때가 많고, 때로는 인연이 없다는 구실로 좌절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그 속에는 나와 남을 돌보려는 어두운 인식이 숨어있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 남과 북 어디에도 마음을 내어놓지 못하는 탈북자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가 하면, 금년에 길에서 얼어 죽은 노숙자가 300여명이나 된다. 노인들이나 학생들의 자살이 해마다 늘고 있다. 새해에도 우리 단체가 이들을 위해 마음 나누는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작지만,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마음속에 지혜와 신뢰의 등불이 이어지길 바란다. 아울러 이를 통해 알과 삶을 함께 되돌아보는 지성이 우리 수행의 한 축이 되기를 바란다.

불자의 눈

‘행복’을 낚는 ‘선지식’이 되자

“과거에 대한 겸허한 성찰(省察)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약속이 화해하는 우정의 시간속에 평화는 도래하며, 우리 모두의 성실한 참여와 이해가 교환되는 공간에서만 우리 사회의 행복은 성취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발표한 신년사의 한 단락이다. 2008년 우리 사회는 새로운 물결을 기대하고 있다. 10년만의 정권교체로 인한 새 물결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곳곳에 스며들길 기대하는 것이다. 불교계도 마찬가지다.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불교계도 새로운 시각으로 활동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세상의 변화와 불교는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오히려 세상의 변화를 선연(善緣)으로 이끌어 가는 힘을 가질 때 불교는 으뜸 종교로서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란 자칫 뿌리를 잊고 줄기와 가지만 흔드는 바람이 일수다. 시류란 당장의 이해관계와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시류에 영합된 변화는 기반이 약하고 그로인해 예기(豫期)치 못한 사건사고를 양산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지난 10년간의 한국사회는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변화에 끌려 온 느낌이 없지 않다.

해가 바뀐다고 천지가 개벽을 하듯 새로운 세상이 열릴길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좀 더 깊고 굵은 뿌리를 근거로 하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는 것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다. 이럴 때 불교는 우리 민족의 진정한 뿌리가 무엇인가를 일깨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신의 뿌리도 중요하고 역사인식과 문화 의식, 정치와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진실로 중요한 뿌리가 무엇인가를 일깨우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불교의 시대적 책무가 지관 스님의 신년사에 잘 나타나 있다.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약속의 화해를 통해 평화를 길어 올리고, 참여와 이해를 통해 행복을 성취하려는 간곡한 발원은 종교와 이념을 떠나 국민 모두에게 따뜻한 보시의 언어가 아닐 수 없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새해에도 불교계를 비롯한 온 국민의 궁극적 소망은 바로 ‘행복’일 것이다.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변화의 궁극적 지향도 결국 행복한 삶일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정치는 사기극일 뿐이다. 종교 역시 만 중생을 행복의 길로 안내하고 행복의 자리에 앉히지 못하는 한 허망한 주장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종교도 정치도 참여와 이해의 큰 마당을 펼칠 때 행복의 길은 열리는 것이다. 새해 우리 사회를 시간적으로 화해시키고 공간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힘, 불교계가 바로 그 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불교는 사회적 지탄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스스로 불러들인 화였다. 내부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욕망과 갈등의 단면들을 여과 없이 노출시킨 사례가 너무 많다. 물론 아직 그런 갈등 구조가 다 해결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더 이상 교단의 갈등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청정교단 회복을 위한 사부대중 공동의 노력이 더욱 견고해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은 언제나 새롭다. 사람이 새로워지지 못할 뿐이다. 2008년 새해, 모든 불자들이 매순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는 선지식이 되길 기원한다.

결혼을 꿈꾸며

김씨는 연말만 되면 가슴이 서늘해지곤 한다. 몇 년 전 그날이 떠올라서이다. 김씨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매우 가난하게 지내왔다.

그러다가 서른이 넘어 어느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여성과 마음이 맞게 되었다. 그녀는 자상하게 마음을 써 주며 부모 사랑을 모르던 김씨는 꼭 빠져들었다. 그녀는 “돈이 없으면 어때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하면서 김씨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였다. 곧 그녀와 결혼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위해주는 여성에게 최소한 전세방에서 신혼살림을 하게 하고 싶은 욕심이 들었다. 이리저리 알아보다 보니 외국에 가서 노동일을 하면 꽤 돈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났다. 고되고 힘든 일이라고 했다. 1년만 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모은 돈에 외국 가서 벌게 될 돈을 합치면 대충 전세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도 처음엔 반대하더니 “그래요. 곧 애기도 가져야 할 텐데 우리 애는 전세에서 키워야지요”하며 찬성하였다.

배신의 고통

그렇게 김씨는 외국에 갔다.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죽어라고 일했다. 유일한 낙은 한국의 약혼녀와 편지하는 일이었다. 전화는 비싸서 거의 못 했다. 안 쓰고 안 입고 월급 전부를 꼬박꼬박 그녀에게 보냈다. 그녀와 찍은 사진을 보면서 고된 일과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었다. 마침내 11개월째가 되자 그녀는 전세를 한 칸 마련하게 되었다고 했다. 김씨는 날아갈 듯 기뻐다.

“그 때의 종소리 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④5 목숨을 구한 자비의 종소리

다들 달이면 귀국이다! 연말엔 결혼해야 하고 생각하니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공항에 마중 나온다면 그녀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기다리다 지쳐 휴대전화를 걸자 없는 번호였다. 너무 놀라 편지했던 주소로 찾아갔다. “바로 2주 전에 이사갔어요. 그런데 그 사귀던 남자가 같이 와서 집 정리해주던데.” 김씨는 귀를 의심했다. “네에? 남자라니요?” “아, 몇 달 전부터 만나던 걸요. 곧 결혼할 사이라던가?” 은행에 가서 자기 계좌를 알아보니 그녀가 자신이 맡겼던 통장과 도장으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찾아가는 것이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수소문해서 한 달 만에 있는 곳을 알아냈다. 약혼녀는 어떤 남자와 도망가 시골에서 전세를 얻어 살기 시작한 것이었다. 김씨가 피땀으로 벌여 보내준 돈으로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린 것이었다. 김씨는 배신감과 분노로 제 정신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속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번 돈인데 전부 가로채서, 너희가 그러고도 사랑이냐!’ 죽이려고 칼을 준비했다. 집을 미리 확인해 두고 근처 여관에 가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새벽에 곤하게 잘 때 문이 들어가고 싶었다.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지난 일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온 몸이 떨렸다. 두 사람에게 복수하고 자기 도 죽을 생각이었다. 이렇게 외롭고 힘든 세상, 더 살고 싶지가 않았다. “12월에 결혼하려고 했

었는데. 대신 장례를 치르게 되는군”하고 생각하니 너무나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자비의 종소리

드디어 새벽 세시가 되어 길을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물러오는 거리는 적막에 잠겨 있었다. 그때였다. “땡~”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종소리였다. 살기도 가득 찼던 김씨는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땡-땡-” 종소리는 계속되었다. 저 멀리 산 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이 새벽에?” 그제야 그 곳이 절이 많은 곳이란 생각이 들었다. 김씨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종소리는 계속되더니 점점 더 커지는 것이었다. 마침내 김씨는 두 귀에서 터질 듯이 울리는 종소리에 그만 발이 얼어붙고 말았다.

그 종소리로 모르게 방향을 바꿨다. 종소리를 쫓아 절을 향해 가고 있었다. 종소리가 나는 법당에 가서 문을 열었다. 새벽 예불하는 스님을 보자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 날로 부처님께 귀의했어요. 용서요? 모든 게 인과응보란 걸 알게 됐지요. 그런데 그날 밤, 정말 뒤에 흘렸던 건지 어떻게 절로 가게 되느냐 말입니다. 그 때의 종소리가 아니었으면 지금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 종소리는 김씨를 살리려고 그의 마음에 나투신 관세음보살의 간절한 부르심이 아닐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비의 소리에 응했던 것이다. 내 한마음 그대로 관세음여사니 내 한마음에 귀의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황수경(영국대 선학과 강사)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이 책은 모든 호법선신이 옹호할 것이며, 성공과 나환이 삼재팔난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존경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尊評”

절찬리 판매중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보정판 4쇄 509쪽 / 15,000원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

발행 2년만에 11쇄 !!

개정판이 나와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 네 영계에 관한,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 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교의 설명으로는, ○ 불교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 할까..... 나는 이제 현자사 큰스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의 성서를 꼭 필독해보시기 바란다.

- 지법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

http://www.hyunjisa.or.kr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궁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영산불교 현지궁 부산 분원 Tel 051)554-5150